

 진주교 서울대교구 구로3동 성당 주보성인 :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08375 구로구 디지털로 27길 82 www.guro3cc.com ☎ 사무실 857-8541~3 팩스 857-8549 부속기관 : 꿀벌유치원 857-8545 요셉어린이집 857-8546	미사 안내	주 일	토요일 주일 : 16:00 (초등부 대성전) , 19:00 06:30 (새 벽) 10:30 (교 중) 10:30 (중·고등부 소성전) 12:00 (낮) 19:00 (청 년)
		평 일	06:30 (새 벽) 19:00 (저 녁)
		예비자교리	일요일 낮 12시 / 화요일 저녁 8시
		유아 세례	토요일 오전 11시 (사무실 문의)

● 교리봉사자 모집

- 그동안 서울대교구에서 사용해온 “함께하는 여정” 예비신자 교리서가 개편되어 새롭게 나눔 봉사자 교육을 실시합니다. 새 교리서 안내 및 나눔 봉사자의 역할 등에 대하여 안내하는 교육에 참여하고, 본당에서 교리봉사를 원하시는 분은 4월 15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알 림

- 유아 세례, 태중의 아기 축복, 봉성체 신청받습니다.
- 유아세례, 태중의 아기 축복식 : 토요일 오전 11시
- 사무실에 문의해 주세요. (개별 예식)
- 새벽 미사는 05:50부터 입당 가능합니다.

● 교 육 / 강 좌

- 살레시오와 꿈(CUM) 후원미사
 - 일 시 : 4월 5일, 10시
 - 지도신부 : 심재현 치릴로 신부님
- 예비신자 교리 신청받습니다.
 - 주일반, 평일반
 - 사무실에서 신청 받습니다.

● 성물방 판매 시간 및 신간 안내

- 판매시간 : 주일 10:00~13:00

● 거리두기 2단계 구역별 주일미사 참례 시간

	토요주일 19:00	새벽 06:30	교중미사 10:30	주일 낮 12:00	주일저녁 19:00
04/11	6~11 구역	12~15 구역	16~20 구역	21~24, 기타구역	1~ 5 구역

- 구역 외 신자 분들도 구역별 시간표에 따라 미사에 참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스크를 코와 턱이 덮히도록 꼭바로 착용합니다.
- “X”로 표시한 자리는 비워두고 앉지 않습니다.
- 개인이 사용한 주보는 가져갑니다.
- 추후 알림 전까지 주일 밤 9시 미사는 없습니다.

● 새로 오신 교우를 환영합니다. (3월 전입교우)

구 역 반	성 명	세 례 명	이전 본당
05구역 3반	오영환	유다타대오	군중/군인
13구역 2반	명정아	유디트	서울/구로2동
14구역 2반	김재현	라파엘	의정부/덕소
14구역 2반	김수진	에스테르	서울/한남동
16구역 4반	김호진	스테파노	대구/수성
22구역 1반	허윤기	토마스아퀴나스	대구/장성

* 돈보스코 오라토리오 학생 및 봉사자 모집 *

- 전액 무료, 저녁 식사제공
- 초등학교, 중등학교 봉사자 모집
(한국어/중등수학 선생님)
- 후원금계좌 : 신한 131-018-937372
(사) 국제청소년지원단

● 다음 주일(04/11) 국수잔치 및 청소 담당

국수잔치	쉽니다.	청 소	21구역
------	------	-----	------

● 우리들의 정성(03월24일 ~ 03월30일)

• 교 무 금	8,015,000원
• 주일헌금	4,300,000원
• 오라토리오 2차헌금	1,268,000원
• 돈술신탁 부활절 어려운이웃 돕기 후원금	5,000,000원
• 감사헌금	정영자 1만원 황금옥 5만원 진상진50만원 진상민50만원 김태훈 5만원 이봉연10만원 박승윤20만원 송명순 5만원 최은화 5만원 조복자10만원 한금봉100만원

● 교중미사 전례봉사자 명단

월일	해 설	복 사		독 서	
04/04	박혜선	조홍환	김영균	장익근	정연희
04/11	황원선	이응남	김진수	최승일	권태희

● 성체 분배자 명단

월일	토요주일	06:30	10:30		12:00	19:00
04/04	박승환	-	박용환	김인기	최상남	이운영
04/11	박용환	이성일	손상민	이계명	최석준	장인홍

교무금 입금 계좌번호 : 우리은행 129-05-001894 예금주 :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 입금인은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적어 주세요.)

“모든 형제들” - 형제애와 사회적 우애에 관한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회칙

4. 프란치스코 성인은 교리를 강요하는 설전을 벌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느님 사랑을 전하였습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하느님 안에 머무릅니다”.(1요한 4,16) 프란치스코 성인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그는 형제적 사회라는 꿈을 불러일으켜 많은 열매를 맺는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삶 속으로 다른 이들을 끌어들이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돕고자 그들의 고유한 활동 속에서 그들에게 다가가는 사람만이 참으로 아버지가 됩니다.” 망루와 방벽이 가득한 그 세상에서 도시들은 유력 가문들이 벌이는 피로 얼룩진 전쟁을 겪었고, 소외된 변방의 비참한 지역은 더 넓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프란치스코는 내면의 참평화를 얻었고 다른 이를 지배하고자 하는 모든 욕망에서 자유로웠으며, 스스로 가장 보잘것없는 이들 가운데 하나가 되고 모든 이와 조화를 이루면 살아갈 방법을 찾았습니다. 이 회칙은 프란치스코 성인에게서 영감을 받은 것입니다.

5. 저는 언제나 형제애와 사회적 우애에 관련된 문제들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저는 이 문제들을 수차례 여러 장소에서 언급하였습니다, 이 회칙에 그 발언들 가운데 많은 것을 모아 더 넓은 맥락에서 성찰하고자 합니다. 또한 「찬미받으소서」를 쓸 때 저는 피조물의 보호를 강력히 제안하던 저의 정교회 형제 바르톨로메오 총대주교에게서 영감을 받았다면, 이번에는 특히 아흐메드 알타예브 대이맘에게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대이맘과 저는 아부다비 만남에서 다음 사실을 되새겼습니다, “하느님께서 모든 인간을 동등한 권리와 의무와 존엄성을 지니도록 창조하시고, 형제자매로 함께 살아가도록…… 모든 인간을 부르셨습니다.” 이는 그저 외교 행위가 아니었고 대화로 빛어진 성찰과 공동의 헌신이었습니다, 이 회칙은 우리가 함께 서명한 공동 선언에 제시된 대 주제들을 받아들여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과 단체들에서 받은 수많은 문헌과 편지를 제 나름의 언어로 받아들였습니다,

6. 앞으로 나올 내용은 형제애에 관한 교리를 요약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보편적 차원과 모든 이에 대한 개방성을 다룹니다. 저는 성찰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이 사회 회칙을 전합니다. 그리하여 갖가지 방식으로 다른 이들을 무시하거나 열외시키는 현실 앞에서 우리가 말로만 국한되지 않는 형제애와 사회적 우애의 새로운 꿈으로 대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생명력을 주고 자양분을 준 그리스도인의 확신에서 이 회칙을 썼지만, 저는 이 성찰이 선의의 모든 이와 나누는 대화를 위한 초대가 되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7. 이 회칙을 쓰는 사이에 예기치 못하게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고, 우리의 거짓 안전이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여러 국가들이 이 위기에 다양하게 대처하였지만, 공동 협력에는 무력하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초(超)연결되어 있음에도,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주는 문제들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든 파편화가 증명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하던 역할을 더 잘하는 것만이 관건이라고 생각한다면, 또는 기존의 법이나 체계들을 개선해야만 하는 것이 유일한 메시지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현실을 부정하는 것입니다.